

# 김영철 北통전부장 교체 북미협상 변화오나

### 이집트서 2천년 전 미라 35구 발견

이집트 남부의 유명 유적도시인 아스완에서 고대 미라 수십 구가 발견됐다.

이탈리아 교수가 이끄는 고고학 발굴팀은 아스완에서 발견된 그레코로만시대(기원전 332년~기원후 395년) 무덤에서 고대 이집트 성인 남성·여성과 어린이 미라 35구를 찾았다고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중 4구는 작은 방 하나에 있었으며, 나머지 31구는 역청을 담은 꽃병이나 야자와 리넨으로 만들어져 잘 보존된 들것 등의 장례용품들과 함께 발견됐다.

다만 이 무덤은 오랜 옛날에 도굴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미라의 보존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 /연합뉴스

### 마오쩌둥 비서 일기 놓고 소송전

마오쩌둥의 비서를 지내면서도 그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리루이(李銳)의 일기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올해 2월 별세한 리루이의 일기는 그의 딸 리난양이 지난 2014년 미국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에 방문학자로 있을 때 후버연구소에 맡겨졌으며, 이후 그곳에 보관돼왔다. 그런데 리난양에 따르면 그의 계모인 장위전이 최근 베이징 법원에 후버연구소에 리루이의 일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장위전은 소송에서 자신이 리루이 재산의 상속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후버연구소나 딸이 리루이의 일기를 출간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리루이의 일기가 중국 공산당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자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 美유나이티드 이미지 쇄신 나서

미국의 대형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United Airlines)이 본격적인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유나이티드항공은 24일(현지시간) 본사 소재지이자 허브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9년 만에 새롭게 바꾼 항공기 외장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보잉 737-800 기종에 맨 먼저 도색된 새 디자인은 '흰 바탕에 파란색 악센트'라는 현재의 기본은 유지하되 '유나이티드' 글씨를 더 크게 강조하고, 수직 꼬리날개의 지구 모형 로고 색상을 금색에서 하늘색으로 바꾼 것이 제일 먼저 눈에 띈다.

항공사는 "금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적극 활용한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연합뉴스

## '하노이 노딜' 여파 속 '통전부→외무성 라인' 이동 관측 최선희 역할론·'강경파' 김영철 퇴장 비핵화 향해 주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그동안 북측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해온 '총책'인 김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북미 간 협상 라인업 재편 등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국면을 맞은 북미 협상의 향배에도 영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측도 그 배경 등에 촉각을 세우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이다. 김 부위원장의 교체 소식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시점에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 부위원장이 이번에는 수행자 명단에 빠지면서 핵 협상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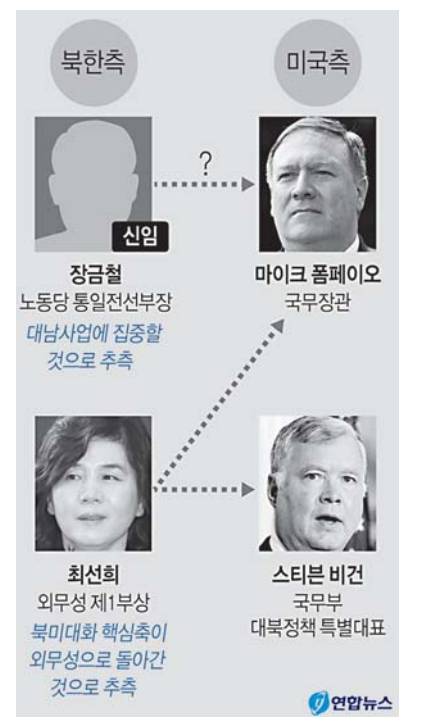
로이터통신은 김 부위원장의 교체와 관련,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끌어온 김정은의 '오른팔'을 교체했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 측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해왔다는 원론적 설명을 해 왔지만, 북측이 '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측 측 대미 협상의 진용이 어떤 식으로 짜질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의 이번 교체가 '하노이 노딜'에 대한 문책성 인사 성격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측 측 라인업이 변화가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북미 협상의 '키맨'이었던 김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북미 협상의 북측 무게중심이 기존의 통일전선부 라인에서 외무성 라인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의 '빈손 결과'에 따른 충격과 속에 대미 협상 전략 전반을 다시 가다듬으면서 조직 재 정비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실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 부상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러 일정에 수행했다. 특히 최 부상은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대미 스피커 역할을 맡으며 전면에 부상한 모양새이다. /연합뉴스



회담 전 담소 나누는 두 정상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만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오른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본격적인 정상회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대화 발전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선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스리랑카 테러후 무슬림 사회 보복 공포 확산

스리랑카 '부활절 테러' 이후 현지 무슬림 사회가 보복 공포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슬람국가(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이 이번 테러의 배후로 알려지면서 현지 무슬림에 대한 비난 움직임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스리랑카 정부가 테러 직후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왓츠앱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차단했지만, 이를 뚫고 무슬림을 증오하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이슬람교도가 사는 주택이나 무슬림 기업인에게 돌이 날아드는 일은 물론 일부 무슬림은 성난 기독교 군중에게 집단 폭행까지 당했다.

수도 콜롬보 인근에서 보석가게를 운영하는 모하마드 진나는 WP에 "우리는 이번 테러를 일으킨 이들을 진심으로 비난한다"며 "하지만 사람들은 테러가 우리 무슬림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보복 우려가 고조되자 일부 이슬람 사원(모스크)은 경찰에 정문 경비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 한·중 기업, 美 압박에 이란서 발 뺀다

### WSJ "화웨이·삼성 등 IT기업, 은행, 석유사들 거래 재고"

이란 경제에 생명줄 역할을 하던 아시아 기업들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이 거세지자 이란에서 점차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해 이란과 거래를 재고하는 아시아 기업 중에는 은행과 석유 업체들뿐 아니라 화웨이, 레노버, LG 전자, 삼성전자 등 기술 거대기업들도 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에서 중국 석유회사에 자본력을 하는 한 소식통은 이란과 중국 기업 간 거래 상당수가 "이미 실패한 계획"이라며 "아무도 폐업 위협의 부담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대이란 압박이 갈수록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 핵 합의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으며, 이에 앞서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기 시작하자 이란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중국은 서방 국가들의 핵 합의 이전부터 이미 유럽을 앞질러 이란의 산업 장비 최대 공급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과 인도,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란산 원유 제재 예외를 연장하지 않고 에너지 산업을 비롯해 이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등 압박을 강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테헤란 업계 관계자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미 이란과의 거래를 줄여 왔으며 미국의 제재 예외 종료 이후 이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할지 한국 정부 관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은 원유 판매에서 얻은 자금을 이들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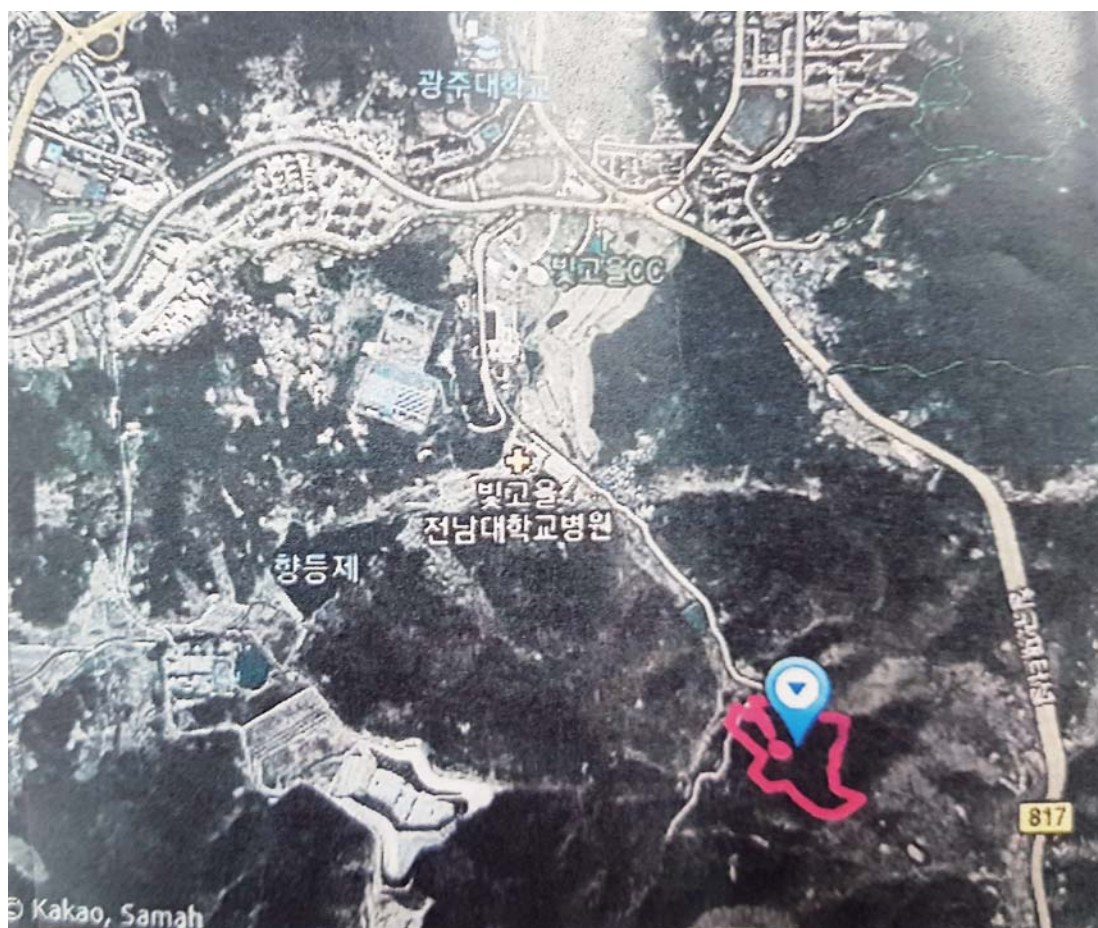
이란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상당량 수입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많은 중국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줄이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대이란 수출은 6억2,900만달러로 2014년~2018년 초의 월평균 16억 달러보다 크게 줄었다.

국가안보 위협 의혹으로 미국의 압박을 받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는 지난달 이란에서 직원 250명 중 대부분을 해고했다고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 남구 덕남동 임야, 추천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